

얼음 깨기

원숭이 사냥 방법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주민들이 다니는 길목의 나뭇가지에 열매를 넣은 조롱박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조롱박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놓는데, 원숭이는 조롱박에 맛있는 열매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조롱박의 구멍이 너무 작아서 열매를 움켜쥔 손을 빼내지 못합니다. 사냥꾼들이 몰려 오면 자신이 쥐고 있는 과일을 놓고 도망을 가야 하지만 원숭이에게는 그런 지각이 없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나친 탐심은 곧,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욕은 '불행'과 '사망'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교회행사

9월

1일	하반기 목장모임 시작
1일	어와나 시작
1,8일	이끄미 1기 교육
22일	진공춧 3기 시작

10월

13-16일	김형국목사와 함께하는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20일	2025 더비기닝 선교학교
26일	교사 컨퍼런스

경배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소식

1. 교사 모집

다음 세대들을 맡아서 양육할 교사가 부족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세요.

문의 : 김승호 목사 (010-9744-4177)

2. 더 비기닝 선교 학교

모집기간 : 10월 13일까지(신청서 기재 후 제출, 혹은 QR코드 촬영 후 작성)

대상 : 더온누리교회 성도 (선착순 30명)

회비 : 100,000원

문의 : 이흥기 목사 (010-5494-1413)

3. 더 말씀으로 가을 사경회 (김형국 목사 초청)

10월 13일 (주일 낮예배), 14-16일 매일 밤 7:30

선교

[김용기 선교사]

필리핀

1. 그레이스 초등학교 학생들이 1:1 결연을 통해서 영적인 양부모들이 맺어져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지도록
2. 그레이스 크리스천 초등학교에 좋은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3. 선교예수 마을 공동체가 완공되어 필리핀 땅이 선교의 나라가 되는 선교센터가 되도록
4. 여호수아 훈련생들에게 '어! 성경' 강의를 통하여 말씀이 일하시도록

한문장 큰 울림

만일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발라 선데이 -

[열왕기하 19: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1_남유다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

25세에 왕에 올라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며, 산당과 우상(비알, 아세라, 놋뿔)을 깨뜨렸다.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개혁을 주저없이 진행했는데, 저 지는 왕하 18:5-6에서 히스기야를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항상 하나님을 꼭 붙잡고 순종하며 따 랐다)” 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한 히스기 야는 이전 왕들과 달리 앗수르에게 당당했습니다. 친앗 수르 정책을 취하며 유다를 못살게 굴던 블레셋을 토벌 하였습니다.

2_앗수르의 위협과 조롱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앗수르는 히스기야가 계속 반앗수 르 정책을 고수하자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유다를 침공합 니다. 순식간에 유다의 성읍들과 블레셋의 성읍들을 휩쓸었 는데, 당시 앗수르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유다의 46개 성읍 과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여 20만이 넘는 포로들을 사로 잡아 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 히스기야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조공을 바쳐 앗수르를 고개를 숙 입니다(왕하 18:14). 앗수르는 약속을 어기고 거침없이 대군 을 몰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압박합니다. 유다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임한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일의 시작을 역 대하 32:1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 고자 한지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며 나라를 거룩하 게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절망적인 국난을 당하게 되었습니 다. 이 전쟁 기사는 왕하 18~19장, 대하 32장, 이사야 36-37 장에서도 상세하게 다루는데, 랍사게는 현란한 언변으로 히 스기야와 백성에게 협박합니다(왕하 18:10-15, 19-25). 유다 를 도와줄 존재는 없다는 것과 히스기야의 우상 제거와 성 전 개혁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지 못 할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3_히스기야의 기도

절망이 깊어지는 기막힌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신하들과 백 성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절망이 깊어질 때 그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을 빼 앗기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랍사게처럼 부정적인 말 로 공동체를 현혹하려는 것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침묵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왕하 19:1).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철수 하게 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사 37:6-7; 왕하 19:6-7). 하지만 앗수르는 계속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신을 보내 협박하는데, 앞서 랍사게의 말과 흡사하지만 핵심 은 유다를 자신들의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으니 빨리 항복하라(왕 하 19:8~13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서신을 보내지 않 고 총공격을 감행했을 것인데, 구스 왕 다르하기가 앗수르를 공격 하려고 군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여 잠시 시간을 토편 다(9절). 다급해진 산헤립은 유다의 항복을 속히 받아내고 구스와 의 전쟁에 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데,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서신을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 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치고 기도를 하는데(16절), 오만방자한 산헤립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에 알려지 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이유는 20장에서 알 수 있는데, 앗수르 침공 전에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었고, 이사 야에게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즉시 성전에 올라 가 통곡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외치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여 주셨을 뿐 아니 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왕하 20:1~11).

[나눔] 혹시 인생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앗수르와 같은 존재가 있나요?

[나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눔

[절망이 깊어질 때 / 열왕기하 19:14~19]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기도

해결책은 하나님께

주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를 극복하게 하소서.

절망이 엄습할 때

절망 중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히스기야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앞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